

논문제요:

본 논문은 19C 초 예수회선교사 Louis Antoine de Poirot (贺清泰) 중국어 성경 《古新圣经.序》와 贺清泰 《古新圣经.再序》에 보이는 성경 번역의 중요성과 의의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정확한 번역이 신앙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21세기 기독교인이 나아갈 바른 신앙의 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Key Word: 19C 예수회 선교사, Louis Antoine de Poirot (贺清泰), 《古新圣经.序》와 贺清泰 《古新圣经.再序》, 성경 번역의 중요성, 21C 기독교인의 신앙의 길

I. 들어가는 말

《古新圣经》은 중국 청나라 嘉庆시기(1796-1820) 1803년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 贺清泰 (Louis Antoine de Poirot 루이 앙투안 드 푸아로, 1735-1813) 가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불가타 성경》¹⁾을 저본으로, 중국어로 번역한 현존하는 가장 이르고, 가장 완성도가 높은 중국어 관화 성경이다. 특히나 푸아로는 1770년 3월20일 예수회 소속 Luigi Cipolla 루이지 치폴라 (1736-1805)와 Lorient (로리앙)항구에서 Massiac 상선을 타고 1770년 10월20일 중국 광주에 도착하고, 1771년 9월29일 건륭황제의 명령을 받고 광주에서 북경으로 상경하여, 1813년 북경²⁾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중국 북경 궁정에서 그의 대부분의 삶을 보냈다. 이런 면에서 그의 중국어 성경 번역서 《古新圣经》은 언어학적 각도에서 당시 북방관화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어서 중국어사(중국어언어발달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연구의 가치를 지닌다. 또한 18세기 이후 역대 중국어 성경이 번역된 이래로, 19C 초 1803년 전후에 쓰여진 중국어 성경 최초의 서문인 贺清泰(Louis Antoine de Poirot)의 《古新圣经.序》와 《古新圣经.再序》의 출현은 중국어 성경 번역사에 길이 빛날 일이다.

- 1) 히에로니무스(영어 이름은 제롬) 즉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제롬(Jerome, 346-420년)이 교황 다마스스 1세의 명에 의해 405년에 번역한 대중 라틴어 성경
- 2) 1153년 중국 송나라의 수도로 정해진 이후, 중국의 元明清 3대가 모두 이곳에 도읍을 정하여 800여년간 중국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명나라 때 잠시 남경이 수도(1368-1421)가 되었다.북경어는 관화(민족의 공통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방언이 되었고, 현대 표준 중국어(普通话)는 북경음을 표준음으로 기초를 삼았다

본 논문은 19C 초 예수회선교사 Louis Antoine de Poirot (贺清泰) 중국어 성경 《古新圣经序》와 贺清泰 《古新圣经再序》에 보이는 성경 번역의 중요성과 의의를 살펴보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번역이 신앙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21세기 기독교인이 나아갈 바른 신앙의 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2.1 저자 贺清泰(Louis Antoine de Poirot)와 《古新圣经》의 번역 배경

1735년 허청태(Hébert Cointet)(1735-1813)는 프랑스 로렌주(Lorraine)에서 태어나,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로 이주하여 로마에서 자라났다.

1756년 예수회에 들어가 피렌체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그는 35세의 나이에 1770년 3월20일 예수회 소속 Luigi Cipolla 루이지 치폴라(1736-1805)와 Lorient (로리앙)항구에서 Massiac 상선을 타고 1770년 10월20일 중국 광주에 도착하였다.

1771년 9월29일 이 두 사람은 청나라 乾隆 황제의 명령을 받고 광주에서 북경으로 상경하였다. 당시는 1724년 雍正 황제가 전례논쟁으로 포교 금지령을 반포한 이후, 종교적인 포교를 금지한 시기라 베이징의 선교사들은 추풍낙엽과 같은 신세가 되었다.

천문학, 수법, 음악, 회화, 시계 등 방면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던 몇몇의 선교사만이 청나라 조정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시기를 찾고 있었던 터였다.

결국 1773년 예수회가 포르투갈, 프랑스, 스페인 정부 및 기타 수도회의 배척을 받게 되자 교황 클레멘트 14세가 예수회의 해산 명령을 내려, 예수회 회원으로 하여금 몇 일 내에 귀속하라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 압박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현실 속에서 贺清泰(Louis Antoine de Poirot)의 중국어 성경 《古新圣经》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예수회선교사 Louis Antoine de Poirot (贺清泰)가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 늘 궁중에 출입하고 건륭 황제의 예우를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천부적인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에 도착한 후 그는 매우 빠르게 만주어와 중국어에 정통하게 되어 강희제의 《聖祖仁皇帝庭训格言》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하였고, 후에는 프랑스 말로도 번역되어 1783년 파리에서 출판되기도 하였다. 그는 또 중국 러시아 협상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북경사이에 전달되는 외교문서를 책임지고 번역하기도 하였다.

Poirot (贺清泰)는 이와 같은 번역 외에도 그림을 잘 그려 회화 분야에서도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는 郎世宁 후 청나라 궁중에서 근무한 서양화가들 중의 하나로 손꼽히며, 주로 산수화, 화조화 및 인물화를 그리는데 능했다. 그는 특별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기예를 닦아, 그의 그림 실력은 건륭황제에게 인정받아, 皇家画院 如意馆을 마음대로 다녀도 될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여러 차례 명을 받아 郎世宁이 추구한 중.서양적 풍미를 계승하여, 郎世宁의 작품을 모사하기도 했다. 그는 이처럼 궁중 화가가 되어 황실의 명을 받들어 종종 圓明園 서양 건물의 장식 그림을 그리거나, 청나라 군사의 전쟁을 묘사한 인쇄물을 제작하기도 하였다.이렇게 Poirot (贺清泰)는 자못 건륭 황제의 마음을 사고 예우를 많이 받으며, “六品頂戴”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였다.

그는 1780년 귀족 관원의 자제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는다는 조건아래, 경내에서 입교하고 싶어하는 한족에게는 세례 주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황제에게 진정서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청나라 조정은 乾隆과 嘉庆시기에 매우 엄하게 포교를 금지하고 있는 암울한 때였다. 乾隆시기의 선교사에 대한 체포와 嘉庆시기의 서양 교당과 서양인에 대한 관제 조례 및 여기 저기서 일어나는 반 종교적이며 금지된 사건으로 인해 이미 몇몇의 선교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였다. 비록 건륭황제가 북경의 선교사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했다 할 지라도 그들도 교당내에서만 공개된 종교활동을 할 수 있었다. 당시 북경에는 4개의 교당(天主堂)이 있었는데 Poirot (贺清泰)는 그 중 북당에서만 설교와 고해성사를 베풀 수 있었다고 한다.

Poirot (贺清泰)는 황실의 명을 받들어 궁내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 대부분의 시간은 북당 내에서 외교문서의 번역과 번역 일에 종사하여 《圣经》을 만주어와 한어로 번역하였는데 《古新圣经》이 그 중국어 번역 성경이다.

2.2 《古新圣经》의 서지학적 특징

2.2.1 《古新圣经》의 내용

《古新圣经. 序》에서 贺清泰 (Louis Antoine de Poirot 루이 앙투안 드 푸아로) 는 성경은 어떠한 책이며, 그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聖經》者，不是人說的平常話，乃是天主之意、天主之語。”天主特意開明他[們]，用聖寵(寵)光照，使他們知道過去、現在、未來的事，比親眼見的更明白、更清楚。不但如此，記載的時候，惟恐記錯，不隨自己的意見，全用天主所定的，如親耳聽(聽)的真切話。”

즉 “성경”은 사람들이 말하는 평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못 박았다. 아울러 하나님은 사람들을 특별히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사랑으로 밝게 비추고 계시며, 사람으로 친히 눈으로 본 것보다 더 명백하고 정확하게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존재임을 밝히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씀의 기록자는 성경을 기록할 때, 오직 잘못 기록함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생각을 좇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하여, 마치 친히 귀로

들은 바와 같이 진실된 말로 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천지와 만물과 신과 사람이 관계가 있어서, 사람들의 영원한 진정한 복과 진짜 재앙이 무엇인지를 밝히 전하고 있다. 만물의 시종은 무엇이며,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한 선과 덕이고, 진정 아름다운 공로(일)라고 말할 수 있으며,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비천이며, 무엇이 허물(과실)인가에 대해 성경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또한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고 서술하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天主特意開明他[們]，用聖寵(寵)光照，使他們知道過去、現在、未來的事，比親眼見的更明白、更清楚。不但如此，記載的時候，惟恐記錯，不隨自己的意見，全用天主所定的，如親耳聽(聽)的真切話。”

2.2.2 《古新聖經·序》에 나타난 번역의 중요성

《聖經》을 번역하는 사람은 성경을 번역할 때 경건하고 신중하여 오로지 성경의 본의를 벗어나 성경의 큰 도를 엉그러뜨릴까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였다. 번역한 명사들도 각국의 문리를 알지만 그들은 그들의 문장 문법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聖經》의 본문, 본의에 따라야 하며, 참 번역가는 사람을 즐겁게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聖經》의 본문, 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히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의 체면이나 문법보다는 도의 이치가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원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但翻譯《聖經》的人，虔誠謹慎，惟恐背離《聖經》本意，《聖經》大道即錯亂了。那翻譯的名士，也知道各國有各國文理的說法，他們不按各人本國文章的文法，全全按着(著)《聖經》的本文、本意，不圖悅人聽，惟圖保存《聖經》的本文、本意。”

“自古以來，聖賢既然都是這樣行，我亦效法而行，共總緊要的是道理，貴重的是道理，至於說的體面，文法奇妙，與人真正善處有何裨益？”

2.2.3 중국어 성경 《古新聖經》의 구조와 번역 방식

2.2.3.1 《古新聖經》의 구조

《古新聖經·序》에서 贺清泰 (Louis Antoine de Poirot 루이 앙투안 드 푸아로) 는 그가 중국어로 번역한 《古新聖經》의 구조와 주석(주해)의 역할에 설명하였다. 저자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다루고, 다시 다섯 권의 성경(모세오경)을 소개하면서,

각 책에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는지 기록하고 있다. 이 다섯 권의 성경은 천지만물의 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제사와 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聖經》有两樣：一是《古經》，一是《新經》。吾主耶穌未降生之先作的經，謂之《古經》；既降之後[作的]，謂之《新經》。雖說是兩樣經，却都是天主降的肯(旨)意，教訓天下萬萬世人。”

“梅瑟聖人遵天主命，創造《聖經》有五本：頭一本講天地萬物、人類原祖原母、天主用全能從無而造，因此叫(叫)《化成之經》；

“第二本講天主怎麼從厄日多國把依斯拉厄爾的後代救出來，因此叫《救出之經》

“第三本講天主怎麼挑選肋未的子孫承受祭(祭)權，也教給他們怎麼行祭獻(獻)的禮，因此叫《肋未子孫經》；

“第四本記載把依斯拉厄爾後代的數目，因此叫《數目經》；第五本講依斯拉厄爾在西奈依親聽的那一代全死在曠野，第二次傳是傳給路上生的這一代人，故叫《第二次傳的[法度]經》。”

위의 고찰로, 특이할 만한 것은 《古新圣经》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편명을 아래와 같이 명명했음을 알 수 있다. 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개신교의 편명	《古新圣经》의 편명
창세기(創世記)	化成之經
출애굽기(出埃及記)	救出之經
레위기(利未記)	肋未子孫經
민수기(民數記)	數目經
신명기(申命記)	[法度] 經

저자는 이 모세오경을 다른 경전과 이어지는 기초 곧 토대라고 하였다.

2.2.3.2 《古新聖經》의 번역 방식

(1) 《古新聖經》의 주석의 중요성과 특별한 표기법

《古新圣经.序》에서 贺清泰(Louis Antoine de Poirot 루이 앙투안 드 푸아로)는 또한 그의 중국어 성경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성경의 원래 텍스트를 "큰 글자"로 표시하고, 주석 또는 해설을 "작은 글자"로 추가했음을 언급한다. 저자는 또 「大字是《聖經》的本話, 小字是沒奈何

添上的。」라고 말하여, 큰 글자가 《聖經》의 원래의 뜻이고 (본문이고), 작은 글자(할주割注、註 지금은 난하주 전통으로 바뀐)는 어쩔 수 없이 첨가한 것이라고 밝히었다. 작은 글자는 “若不添上小字, 中國說話 [說] 不完全, 《聖經》的本意不能明白。”(작은 글자를 첨가하지 않으면 중국말로 표현하기가 온전치 않아서 성경의 본의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되었고, 원본 텍스트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주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작은 글자와 주석은 중국어로 된 성경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저자는 동그라미, 줄 긋기, 점 등 특별한 표기로 인명, 지명, 나무, 치수, 악신, 참신 등을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성경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再問這《經》上傍邊, 或畫(畫)一直道, 或「畫二直道, 或三直道;答: 「為分別人名, 地方、樹、丈量、邪神。比如人名畫一直道, 地方、樹(樹)、丈量的器物畫二直道, 邪神畫三直道, 天神點(點)點。」”

3.1 《古新聖經.序》와 《古新聖經.再序》가 2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교훈

3.1.1 두 종류의 독자층에 대한 비유

《古新聖經.序》에서 Louis Antoine de Poirot (루이 앙투안 드 푸아로)는 위의 고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확한 성경 번역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고, 그것이 신앙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Louis Antoine de Poirot (루이 앙투안 드 푸아로)는 《古新聖經.序》를 집필한 후, 다시 한번 《古新聖經.再序》를 썼다. 그는 《古新聖經.再序》에서 어느 날 그의 꿈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성경 번역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성경 번역자와 성경을 읽는 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는 《古新聖經.再序》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의 두 가지 태도와 이것과 관련 지어 《聖經》번역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자는 《古新聖經.再序》에서 두 종류의 독자층에 대해 기록하였다.

첫 번째 독자층은 성심으로 이치를 추구하여 말의 속됨과 속되지 않음, 설법의 순조로움과 불순함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이치가 명백하여 뜻만 명백하면 되는 사람으로 중요한 것은 말의 본질인 이치라고 생각하며, 말의 꾸밈이나 미사여구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종류의 독자층에

대해 서술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看書有兩樣人，一樣是誠心愛求道理，並不管話俗不俗，說法順不順，只要明白出道理來，足足彀(够)了，也對他的意思。這樣的人可不是賢人麼？所該貴重的，他們也貴重。本來要緊的是道理，話雖是文彩光輝，若無道理，算甚麼呢？一口空噓氣而已！”

두 번째 독자층은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호기심을 위해 책을 읽는 사람으로, 별다른 이벤트가 없으면 곧바로 식상해져서 책을 놓고 볼 마음이 없어지는 사람의 부류로,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도모하지 않으며, 그들의 눈과 귀만 즐겁게 하는 자라, 성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看書單(單)為解悶。倘或是讀書的人，單留心話的意思深奧不深奧，文法合規矩不合(v+o+不+V);講的事情，或是從來沒有見過的，或是奇怪的，或是多有熱(熱)鬧(鬧)的，一見沒有，或是[看]書上沒有修飾(飾)，就厭煩了，拋下書無心看了。

論這樣人，一定要不服我翻的《聖經》，但這不服的人原不圖取神益(神意)，而在悅耳目;若是這樣，一定題(顯)出他們不狠明白懂得事情的來(歷)(歷)。”

그는 이 두 번째 독자층의 불순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聖經》은 사람이 자기의 뜻으로 지은 책이 아니라 천주께서 친히 말하고 성인이 기록한 것이다. 천주께서 만약 기묘한 문법을 쓰고자 하셨다면 그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랴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문법의 책으로 만드셨을 텐데, 그는 그렇게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이치는 적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속어로 한 가지 일을 말하고 또 다시 중복해서 말하고, 높은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셨으며, 또한 깊은 진리의 도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다”고 하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聖經》不是人自己本意作的書，是天主親自說，聖人記載的。天主若要用奇妙的文法，既然他無所不知，一定能做絕美文法的書，[但]他不肯！因他的意思是為人寡學道理，行道理的事，所以特用俗語說了一件事，又重說，要高(高)明的或愚蒙(蒙)的都能容易懂得、也深深記得要緊的道理。”

3.1.2 꿈 이야기

《古新圣经. 再序》에 Louis Antoine de Poirot (루이 앙투안 드 푸아로)는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번역자의 논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질문과 그에 질문에 대한 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사람의 뜻에도 맞으며, 높지도 낮지도 않게 중간 정도의 논조로 성경을 번역하면 안되나요? 무슨 방해가 되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그는 단호히 안된다고 답하며 그의 꿈 이야기를 하였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定不得有人說：「為欽敬天主的言語，也為合讀書人的心意，也不高，也不低，用中等的說法翻譯，使不得麼？有何妨礙呢？」”

答：「起初聖教內有一極高明的人，名熱羅尼莫，也這樣想。他幾十年看古時博學人的書，後頭覺得外教的人輕慢《聖經》，因為話平常，說法太俗，定了主意要光榮《聖經》，挑選西瑟落作的書，以他（它）為模樣，照他的高文法翻譯《聖經》。

위의 원문 내용은 “처음에 교회 안에 매우 고명한 예로니모(ST.Hieronymus)라는 사람이 있어 그도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몇 십 년간 고대의 박식한 사람들의 책을 읽고 난 뒤, 후에 이방인들은 《聖經》을 경시한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말씀이 평이하고 설법이 너무 대중적이라 《聖經》을 더욱 영광스럽게 할 생각을 하고 시러워가 지은 책을 골라 그대로 본을 떠서 그의 고등 문법을 따라 《聖經》을 번역하려고 하였다.”라고 답하였음을 서술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그의 꿈 이야기를 계속해 가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번역을 이미 시작을 하였는데 뜻밖에 어느 날 밤 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시며 회초리로 그의 온몸을 때리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때리시고 한편으로는 그를 조소하며 말씀하시길 ‘너는 시씨뤼의 문하생이니 우리가 너에게 원수 갚으러 왔도다’라고 하셨어요. 예뤼니모가 꿈에서 깨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다만 온 몸이 아프고 만신이 채찍으로 맞은 상처가 있었습니니다. 그때서야 그의 노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지 않음을 알고 번역을 멈추었습니다. 성인은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써 보내 말하기를 ‘너는 이 일이 꿈 속의 헛된 일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지금 몇일이 지났는데도 나는 아직도 통증이 있으며 채찍으로 맞은 흔적이 다 날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전철이 반복되면 마땅히 살피야 한다. (전자의 실수는 후자의 교훈이다)”라고 하며 꿈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已經動手，不料一夜睡臥夢寐之中，天神執鞭顯現，責條他，用鞭 [朝他]渾身上下亂打。

一面打，一面譏諷說：「你是西瑟落的門弟，我們特來酬報你。」熱羅尼莫一醒，天神不見了，但聖人渾身覺得疼，也滿身有鞭痕，纔知道他的工夫不合天主聖意，就住了手。聖人寄書一相(个)契友，詳細訴這件事，也說：『你不用想我這是一虛夢的事。雖到如今已經幾天，我還覺得疼，鞭痕未愈。』」

그리고 그는 《古新圣经.再序》 말미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여 하나님의 본의대로 성경을 번역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그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前轍既覆，後車宜監（鑒）。所以我敢不謹慎？敢不隨天主聖意，致招天主教怒耶？”

위의 말을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이런데도 내가 근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의로운 노함을 불러 일으키리오?”

Ⅲ 나오는 말

Louis Antoine de Poirot (루이 앙투안 드 푸아로)는 《古新圣经.再序》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지, 그의 총명하고 우매함을 구별치 않으셨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면, 《聖經》을 번역하는 사람이 어찌 그의 뜻을 감히 저버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그러므로 성경번역자는 번역에 있어서 본문과 부합하여 사람이 마음대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이며, 논조나 표현력에 있어서 번역자가 고쳐 말하여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天主貴重的不過是人的靈魂，聰明、愚蒙天主不分別。為幾個懂文法的人，不忍耽（耽）擱了萬萬愚蒙的人，不能懂文深的書，他們的靈魂也不能得受便益。既然天主的聖意是這樣，翻《聖經》的人敢背他的旨意麼？翻譯的書合對本文，全由不得人或添或減，或改說法，恐怕有錯處。”

이 말은 요한계시록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22:18-19)”라 하심과 같다

賀清泰 (Louis Antoine de Poirot) 는 《古新圣经.序》와 《古新圣经.再序》에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있어서, 《聖經》은 사람이 자기의 뜻으로 지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하고 성인이 기록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성경은 복잡한 문법이나 미사여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기록되었다고 하였다.

저자는 《古新圣经.再序》에서 예로니모(St. Hieronymus)라는 고전 학자를 예로 들어, 성경 번역에 있어서 문법적인 개선을 시도했다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와 질책으로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번역을 멈춘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는 성경의 번역 작업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무시하거나 왜곡해서 번역하면 그에 대한 경고와 노함이 올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마태복음 5장은 “山上垂訓”으로 직역하면 “산 위에서 내려주신 교훈”이라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8福에 대해 말씀하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은 것임이요(마5:3-4)”

인간 누구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福”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성경은 생명(生命)과 영생(永生), 천국(天國)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20:31)”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요17:3)”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17:20-2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3)”

(“In reply Jesus decla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과 생명, 영생, 천국” 이러한 단어들은 인간의 일생생활에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미의 개념과는 또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지인 “복음(福音)”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은 이런 어휘들의 의미를 묵상해 볼 때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18세기 이후 역대 중국어 성경이 번역된 이래로, 19C 초 1803년 전후에 쓰여진 중국어 성경 최초의 서문인 贺清泰 《古新圣经.序》와 贺清泰 《古新圣经.再序》는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나아가야 할 바른 신앙의 길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땅의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야 할 의무와 그 십자가의 핏 값의 은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참고문헌>

『古新聖經殘稿』：賀清泰，中華書局，2014